

승점 ‘1’ 남은 홍명보호… ‘11회 연속 월드컵’ 축포 쏜다

내일 새벽 월드컵 3차예선 경기 35년 만의 이라크 원정 A매치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직행 티켓

한국 축구가 35년 만의 이라크 원정 A매치에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매듭지으려 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3시 15분(이하 한국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3차 예선 두 경기씩을 남겨놓은 현재 4승 4무(승점 16)로 무패 행진을 벌이며 요르단(3승 4무 1패·승점 13), 이라크(3승 3무 2패·

승점 12) 등을 제치고 B조 6개국 중 선두를 달린다.

이번 이라크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1회 연속이자 처음 출전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해 통산 12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다.

물론 이라크에 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벌일 3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도 지면 4차 예선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어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FIFA 랭킹은 한국이 23위, 이라크가 59위다. 역대 국가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도 한국은 최근 3연승을 포함해 10승 12무 2패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쓴맛을 본 것은 승부차기 패배라서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남은 2007년 아시안컵 준결승 때다. 당시 연장까지 0-0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4로 졌다.

정규시간 경기에서 패한 것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0-1로 진 것이 마지막이다.

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출국해 이날 밤 결전지 이라크에 도착한 한국 선수단은 경기 시간쯤에 맞춰 현지시간 3일 오후 9시(한국시간 4일 오전 3시) 알파이하 스타디움에서 이라크 입성 후 첫 훈련을 했다.

먼저 이라크에 도착해 있던 중동 국가 리그 소속의 권경원, 원두재(이상 코르파칸), 조유민(샤르자), 박용우(알아인)를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함께하고서 뒤늦게 합류한 이강인까지 이번 원정에 참여한 26명의 선수

가 ‘완전체’를 이룬 채로 훈련을 시작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훈련은 선수별로 소속팀에서의 경기 출전 시간 및 시기를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눠 피지컬 훈련으로 시작했다.

이후 레크리에이션을 겸한 코디네이션 훈련, 공격 및 수비 포지션 훈련을 위한 스몰사이드 게임의 전술 훈련을 이어갔다.

코치진은 이라크전에 맞춘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1시간 일찍 훈련장에 도착해 준비했고,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고온의 날씨에도 선수단은 밝은 모습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다.

홍명보 감독은 전술 훈련에서 포지션별로 복수의 선수를 두루 기용하면서 이라크전에 적합한 선수가 누구일지를 살폈다.

대표팀으로서의 현지 날씨와 낮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 최우선 과제다.

현지 기온은 낮 시간대는 최고 45도까지 치솟

고, 저녁 시간대에도 35도에 머문다.

게다가 현재 대표팀에서 이라크 원정 A매치를 경험한 이는 선수, 지도자를 통틀어 홍명보 감독이 유일하다.

한국이 이라크에서 원정 경기로 A매치를 치른 것은 1990년 2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친선경기 이후 35년 만이다. 당시 선수였던 홍 감독이 선발 출전한 경기다.

그리고 나서 그해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는 등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이라크가 홈 경기를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근 중동국에서 치르는 일이 반복되면서 한동안 우리 대표팀이 이라크에서 A매치를 치를 일이 없었다.

다만, 현재 대표팀 코치인 김동진이 20세 이하(U-20) 대표팀 선수 시절이던 2000년 3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U-20 대표팀과의 두 차례 친선경기를 뒀 적이 있다.

연합뉴스

장성군청, 장보고기전국조정 ‘종합준우승’

장성군청이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장성군청은 지난 2일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일반부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김미수-유지현조는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7분42초35의 기록으로 화전군청(7분50초47), 부산항만공사(7분51초)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메달은 싱글스컬과 더블스컬에서 각각 나왔다. 이수빈이 싱글스컬에서 9분25초를 기록, 군산시청 김승현(9분22초30), 광주조정협회 김정민(9분25초05)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이수빈-김미수조가 더블스컬에서 7분41초31를 기록해 군산시청 김찬하-최미서(7분35초52), 광주조정협회 서에서-김정민(7분39초82)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김옥경 장성군청 조정팀 감독은 “이번 대회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대회 남녀 18세이하부에서는 광주체고가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여자18세이하부에서는 광주체고 김지선(9분06초52), 노효림(9분17초05)이싱글스컬



장성군청 유지현-김미수(왼쪽부터)가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경량급 더블스컬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조정협회 제공

1,2위를 차지했다. 김지선-노효림은 더블스컬에서 7분37초29를 기록, 서울체고 김채운-안예선(7분47초53)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남자18세이하부에서는 경량급싱글스컬에서 나선 강준우가 8분48초14로 서울체고 서정완(9분05초73)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쿼드러플스컬에서는 강준우-박준호-박성빈-강한경이 6분28초52를 기록, 부산체고(6분28초10)에 이어 2위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혜원 기자

전남도청 에페 박소형, 국가대표 선발 준우승

전남도청 박소형(32)이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개인전 2위에 오르며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박소형은 지난 2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개인전에 출전, 8강에서 최은숙(광주서구청)과 접전 끝에 11-10으로 승리하며 4강에 올랐고, 4강에서는 이혜인(울산시청)을 13-12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송세라(부산시청)에게 12-15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송세라는 8강에서



박소형

강영미(광주서구청)를 14-12로 눌렀고, 준결승에선 대표팀 동료 장서연(강원자치도청)을 1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앞서 열린 첫 번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올랐던 박소형은 이번 대회 성적으로 잔여 선발전 결과와 관계없이 대표 자격을 획득했다. 조혜원 기자

광주FC, K리그1 12구단 중 최적 잔디상태 호평

그린 스타디움상 수상

광주FC가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3라운드에서 12개 구단 가운데 최적의 잔디상태를 유지한 구단으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1~13라운드의 관중 유치, 마케팅, 잔디 관리 성과를 각각 평가해 △풀 스타디움상 △플러스 스타디움상 △팬 프렌들리 클럽상 △그린 스타디움상 수상 구단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그린 스타디움상’은 경기감독관 평가(50%), 선수단 평가(50%)를 합산해 수상 구단을 결정했다. 그 결과 광주의 홈구장 광주월드컵경기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는

광주시체육회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적의 그라운드 상태를 유지했다. 뒤를 이어 제주 홈구장 제주월드컵경기장, 안양 홈구장 안양종합운동장이 각각 2, 3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서울은 ‘풀 스타디움상’을 받았다.

지난 시즌 평균 대비 관중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구단에 수여하는 ‘플러스 스타디움상’은 FC안양에 돌아갔다.

마케팅, 팬 서비스 등을 평가해 가장 팬 친화적인 활동을 펼친 구단에 수여하는 ‘팬 프렌들리상’은 MD솔 및 F&B 시설 개선과 마스코트 활용 마케팅 강화에 나선 대전하나시티즌에게 주어졌다. 조혜원 기자

KIA 루키 김태형 “1군 목표 탄탄히 준비할 것”

“처음엔 하루라도 빨리 1군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군에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

KIA 타이거즈 신인 투수 김태형(19)이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받으며 1군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교류전에 선발로 나서 5이닝 동안 총 65개의 공을 던지며 1실점으로 호투했다.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은 김태형은 덕수고 시절부터 고교 최고 수준의 직구를 던지는 우완 유망주로 평가받았다. 스프링캠프에 포함돼 예비 선발 자원으로 주목받았고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다.

성적은 좋지 않다. 시즌 초반 6경기에서는 4패 평균자책점 13.50으로 고전했다. 22이닝 동안 45피안타를 맞으며 위기를 자초했고 피안타율은 무려 0.411에 달했다.

고교 시절에는 위력적인 공으로 타자를 억박지르며 손쉽게 이닝을 쌓았지만 프로에서는 ‘1이닝조자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김태형은 “고등학교 때는 내가 던지면 타자들이 못 치고 순식간에 5이닝씩 던졌다”면서 “그런데 프로는 다르다. 1이닝 1이닝이 정말 어렵고 타자들 컨택 능력도 좋고 볼도 안 고른다. 정면승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끝까지 로테이션을 소화한 덕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난달 17일 고양과의 퓨처스리그 더블헤더 1차전에서 4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으로 제구와 운영의 안정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스캅서 예비 선발 자원 주목
소프트뱅크전 첫 5이닝 소화
제구·운영 안정감 긍정 변화



KIA 김태형이 최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이번 시즌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태형은 “예전에는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넣는 데만 집중했다. 타자랑 싸운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포수 리드에 맡기고, 자신 있게 던지려고 한다”며 “마운드에 오를 때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자’는 생각으로 임한다. 조금

씩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소프트뱅크전에서 처음으로 5이닝을 던졌다. 손가락 물집 때문에 더 오래 던지지 못해 아쉽지만 다음 경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조혜원 기자

전남도청 윤웅진·제영우, 종별우수선수권 ‘금메달’

전남도청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경북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윤웅진(35)은 이번 대회부터 플레잉코치로 처음 출전한 산타 -60kg급 8강전에서 최진오(영주시청), 4강전에서 이재준(포항시청), 결승전에서 변성지(대구시청) 등 모든 경기를 2-0 완승으로 장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입단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예 제영우(22)는 투로 남권 부문에서 9.44점을 받아 고영우(9.34점), 김진수(9.25점, 이상 충북개발공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장민규(31)는 태극권 부문에서 은메달, 태극검 부문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고, 김창현(21)은 산타 -75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조혜원 기자



윤웅진(오른쪽)이 최근 경북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 산타 -60kg급 정상에 올랐다. 전남도체육회 제공